

# 高麗時代 古墳에 대한 — 考察

## - 좌향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

嚴 翼 成 (명지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고려시대의 묘제 |
| II. 좌향리 고분군 | IV. 맷는말       |

### I. 머리말

고려시대 고분에 대한 우리의 학술적 조사는 1947년 개성 法堂坊 벽화고 분<sup>1)</sup>부터 시작되었으나 몇 기의 벽화묘를 제외하고는 학계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단지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등 앞 시기 유적을 발굴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부차적 유적으로서 보고된 것들이다. 지금까지 약 70여 개 소<sup>2)</sup>의 고려고분이 조사되었으나 전면 발굴이 아닌 국지적인 조사가 대부분 이어서 그 조사 내용이 너무 간략하다. 이는 고려의 중심지가 북한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영향으로 남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지배층의 무덤보다는 일반

1) 李弘植, 1954, 「高麗壁畫古墳發掘記」『韓國古文化論攷』乙酉文化社.

2) 趙由典, 1993, 「構造에 대한 意見」『坡州 瑞谷里 高麗壁畫墓 發掘調查 報告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민들의 무덤만 발견되는 경향에도 기인한다. 또 다량의 부장유물 등 보다 많은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先代 고분에 비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부분도 있다. 다행히 1980년대 직동 고려석곽묘가 발견된 이래 1990년대에 들어 전국적으로(특히 충주 지방) 고려시대 고분의 발견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삼국·통일신라의 古墳 資料에 비하면 그 수가 열악하기 그지없고, 전국적인 분포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현실에서 고려 고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논문도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전반적인 고려시대 고분(묘제)에 대한 고찰보다는 좌항리 고분을 중심으로 그 당시 묘제의 일면에 집중해 보고자 할뿐이다.

우선 근래 조사된 고려시대 주요 고분 유적과 그 성격을 살피어 본고의 주제인 좌항리 유적과의 비교 자료로 삼고자 한다.

### 1. 忠州 直洞 古墳群<sup>3)</sup>

고려 전기의 수혈식 석곽묘 15기가 발굴 조사되었다. 半地下式의 墓圹안에 兩長壁은 보다 정밀하게 축조하고, 兩短壁은 보다 단조롭게 板狀割石을 세워 마감하고 있다. 각 석곽은 서로 上下로 段을 지며 분포하고, 좌우로 약 5m 거리를 두고 있다. 석곽 내부에 관못이 모두 출토되어 목관의 사용을 알 수 있고, 주요 출토유물로는 青磁梅瓶과 玉貫子·철제가위 및 咸平元寶(998-1003년)를 비롯한 中國銅錢이 다수 발견되었다. 고분의 분포 형태와 출토유물의 質로 보아 유력한 집단에 속하는 가계의 집단 묘지로 추정한다.

### 2. 許有全 墓<sup>4)</sup>

강화군 불온면에서 발견된 충렬왕때 문하시중을 지낸 허유전(1243~1324

3) 金顯吉·車勇杰, 1986, 「忠州直洞古墓群發掘調查報告」『忠州山城 및 直洞古墓群發掘調查 報告書』, 忠州工業專門大學博物館·忠州市.

년)의 묘로 고려 후기 상류층 묘제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묘역은 모두 3단을 구성되었는데, 막돌을 「匱」字形으로 2단 석축한 무덤의 前面에는 문비석과 묘표석 및 혼유석 등을 제2단에, 문인석은 2단과 3단의 경계 좌우에 배치하고 있다. 제1단에 무덤을 두었으며, 그 좌우와 후면에는 둘레돌담을 「匱」形으로 쌓았고, 시신을 담은 널은 둘레돌담의 중앙부에 읊을 파고 매납하였는데, 나무널(棺)을 만들어 먼저 넣고, 후에 그 외곽에 납작한 판자 돌로 바깥돌넛을 짜 맞추었다고 조사자는 보고 있다. 또 널의 규모는 길이 2m에 너비를 1m 내외로 추정한다. 전체 무덤 구역은 장방형 형태를 이루나, 봉토 부분은 방형이며, 당시 考造尺(1尺:30.785~31.0272cm)으로 복원하였을 때 봉토 외곽 基底部를 이루는 둘레담의 길이와 폭은 각각 16尺이고, 널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8척과 3.5척에 해당한다. 무덤 봉분의 본래 높이도 『高麗史』「刑法志」의 기록대로 16척(490cm 내외)으로 복원하고 있다. 관못 1점과 宋元通寶(968~975년) 등의 중국동전이 다수 발견되었고, 토기병과 청자잔도 출토되었다.

### 3. 中原 樓岩里 古墳群<sup>5)</sup>

누암리 산 36번지에서 석곽묘 3기 ·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능선의 南向 斜面에 입지하며, 유구의 장축은 능선의 방향과 일치한다. 석곽묘는 풍화 암층을 「匱」字形으로 파내어 묘광을 만든 다음 할석으로 네벽을 쌓아 올리고 장대한 판석을 개석으로 이용한 穩穴式石槨墓인데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토광묘와 석곽묘 모두 맨바닥을 정리하여 이용하고 있고, 관못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목관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 누암리 산 41번지<sup>6)</sup>에서도 고려 고분 2기가 조사되었는데, 제23호분은

4) 손보기 · 장호수, 1988, 『가락 허시중공 무덤 발굴조사보고』, 한국선사문화연구소 · 김해허씨시중공파증양회.

5) 文化財研究所, 1991, 『中原 樓岩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수혈식 석곽묘로 장방형 토팔을 파낸 후 그 안에 할석으로 네벽을 쌓아 올리고 장대한 판석 6~7枚를 덮는 구조이다. 목관은 석곽의 북벽쪽에 붙여 안치하였는데, 棺 内部 바닥에는 동전을 한겹 깔고, 곡식을 뿐린 다음 주검을 넣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장품은 관과 석곽의 남벽 사이에 두었으며 崇寧重寶(1102~1106년) 등 중국동전 30여점과 81점이나 되는 많은 관물이 출토되었다. 제23-1호분은 토팔묘로 풍화암층을 단면상 'L'자형으로 파내어 무덤 광을 조성하였는데 평면은 장방형이다. 바닥은 평평하게 맨바닥으로 조성하였으며, 중앙부에 요개(규모: 46×30×20cm)을 두고, 그 안에 劍身形 鐵器와 鑄造 鐵斧片을 매납하고 있었다. 주요 유물로는 동경과 청동시저가 있다.

#### 4. 忠州 丹月洞 古墳群<sup>6)</sup>

모두 석곽묘 20기 · 토팔묘 7기 · 회곽묘 2기 · 화장묘 1기 등이 조사되었다. 대부분 장축방향을 능선의 사면방향과 일치하게 조성하였으며, 지면을 'L'자형으로 파아 움을 만들고 있다. 석곽묘와 토팔묘가 중첩되는 경우 석곽묘가 선행 유구이며, 묘광 안에 할석으로 축조한 석곽묘는 다른 유적과 유사하고, 兩短壁은 보다 간략히 대형 판석으로 마감하고 있다. 바닥은 대부분 생토를 그대로 이용하나 일부 판석을 깔아 棺臺를 설치한 것도 보인다. 목관의 사용은 보편화되었고, 판석을 덮개들로 사용하고 있다. 부장품은 모두 관 밖(머리와 발끝)에 매납하고 있다.

토팔묘에 사용된 목관의 두께는 3cm내외로 보며, 쇠동과 숯이 함께 매납 되기도 한다.

6) 文化財研究所, 1992, 『中原 樓岩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7) 길경택 · 황정아, 1992, 『충주 단월동 고려묘 발굴조사보고서』 충주박물관.

吉徑澤 · 李善喆, 1996, 『忠州 丹月洞 高麗古墳群』-第2次 發掘調査 報告書-, 忠州博物館.

화장묘도 묘광을 만들고 그 안에 骨壺를 매납하고 있으며, 다른 부장품도 함께 넣고 있다. 회곽묘에서는 正隆元寶(1156~1161년)가 출토되어 고려시대 회곽묘로 밝혀졌다.

유적의 전체 편년은 11세기에서 14세기로 조사자는 보고 있다.

## 5. 고양 더부골 고분군<sup>8)</sup>

모두 65기의 토광묘와 1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일부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는 유구도 있으나 유적의 중심 연대는 고려 후기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m, 폭 0.7m 내외로 서로 유사하며,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유구의 분포상에서 분묘의 造營意識을 엿볼 수 있는데, 서로 장축상 일직선상에 위치한다던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좌우로 배열되는 점에서 동일 집단의 共同墓域일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유물의 매납 위치와 묘광 바닥의 시설 등으로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바닥에 요갱을 설치하고 유물을 短壁과 목관 사이에 매납하는 제1유형과 요갱이 사라지나 여전히 短壁쪽에 묻는 제2유형이 있고, 이와는 확연히 구별되게 長壁과 목관 사이에 부장하는 제3유형이 있다. 그중 제1·2유형은 고려기, 제3유형은 조선 전기로 편년되어진다.

전체 유구중 33기에서 요갱의 시설이 관찰되었는데 용도 불명의 철제품(鐵鎌?)과 토기호 등이 매납되어 있었다. 출토유물은 景德元寶(1004~1007년)등의 비롯한 중국동전·朝鮮通寶(1423년이후)·토기호(편호)·청동시·청동발·청자와 백자의 대접·접시 등이며, 실제 사용하였던 물건이 대부분이다.

8) 申千湜·嚴翼成, 1993, 「더부골 古墳群(I) 發掘調査報告」『高陽中山地區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 한양대학교·경기도.

## 6. 안산 부곡동 고분<sup>9)</sup>

석곽묘와 토광묘 등 모두 9기가 조사되었는데 고려 후기의 유적으로 편년 된다. 석곽묘인 東1호묘에서는 兩長壁만을 할석을 쌓아 만들고, 兩短壁은 판석 1매씩을 세워 간략히 마감하고 있으며, 대형 판석을 두껍들로 사용하였다. 석곽내에는 목관을 사용한 흔적인 관못이 보이고, 바닥 중앙의 요갱 안에 높이 27cm인 매병을 매납하고 있으며, 開元通寶(780~804년) 등 중국 동전이 동반 출토되었다. 토광묘인 西4호묘에서는 관못과 청자잔 및 청동시와 바닥 중앙부의 요갱에서 쇠낫이 출토되었다. 또 前面에 제단 시설로 추정되는 돌계단이 노출되었다.

## 7. 화성 둔대리 고분<sup>10)</sup>

고려후기에 조성된 4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제5호묘는 바닥에 두 개의 요갱을 설치하고, 그 안에 景德元寶(1004~1009년)를 매납하고 있다. 제7호묘에서는 貨泉(14년 주조)을 비롯한 중국동전 18종 39점과 48점의 관못이 출토되었다. 제8호묘에서는 바닥 중앙의 요갱에 쇠낫이 매납되었고, 북벽 쪽에서는 철제가위와 경덕원보 등 중국동전 13종 16점이 출토되었다. 제10호묘는 積石式 토광묘로 토광의 上端만을 판석과 할석으로 덮고 있고, 바닥에서 鍛造鐵斧와 41점의 관못이 출토되었다.

9) 손보기·장호수, 1995, 「안산 부곡동 옛무덤 발굴조사 보고」『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간)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1)』, 한국도로공사·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0) 朴喜顯·金榮官, 1995, 「華城 屯垈里 發掘調查 報告」『서해안 고속도로건설구간(안산-안중간)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1)』, 한국도로공사·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 8. 華城 松羅里 灰槨墓<sup>11)</sup>

제 1호분은 앞면이 넓은 사다리꼴의 護石이 돌려지고, 그 중앙에 묘광을 개설한 다음, 그 안에 자연석회을 활용한 회곽묘를 축조하였다. 관못의 출토 위치와 크기 및 관못에 부착된 목재의 두께 등을 비교하여 二重棺이 사용되었다고 조사자는 보고 있다. 외관의 규모는 너비가 머리쪽과 발치쪽이 각각 70cm와 66cm인 頭廣足狹의 형태로 길이는 210cm이다. 내관은 폭 54cm, 길이는 190cm이다. 또 棺材의 두께는 외관이 7cm, 내관이 4cm이다. 머리 쪽에서 『家常貴富』銘 銅鏡과 빗 2점이 출토되었고, 중앙부에서는 철제가위와 구리반지가 발견되었다. 또 1-1호분과 合葬墓로 보며, 조성 시기를 고려시대로 보고 있다.

### 9. 화성 구포리 회곽묘<sup>12)</sup>

제 2-16호와 3-2호 회곽묘의 봉토내에서 11세기로 편년 되어지는 고려백자 등이 출토되어 고려시대 회곽묘로 이해하고 있다.

### 10. 丹陽 下坊里 古墳群<sup>13)</sup>

모두 4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장방형 평면형태에 길이는 2m, 폭은 0.6m 내외이다. 바닥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板石을 깔아 棺臺

- 
- 11) 尹世英·金右臨, 1995, 「華城 松羅里 墳墓群 發掘調查 報告」『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간)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 한국도로공사·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 12) 윤내현·한창균 외, 1995, 「화성 구포리 벌굴조사 보고」『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구간(안산-안중간)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 한국도로공사·단국대학교 중앙 박물관.
- 13) 김경택·유봉희·이선철, 1997, 『丹陽 下坊里古墳群 發掘調查 報告書』, 忠州博物館·韓國道路公社.

를 조성하고 있다. 축조 연대를 11~12세기로 보며, 청자대접·유병과 보조비녀 등이 출토되었다.

### 11. 尚州 靑里 遺蹟<sup>14)</sup>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팔묘와 석곽묘 500여기가 조사되었다. 고려시대 분묘의 중심 연대는 출토된 청자·녹청자의 접시와 완, 그리고 편병토기 등 유물로 미루어 11~12세기로 보아지며, 일부 象嵌青磁 末期 양식을 보이는 유구는 14世紀 末로 판단한다. 그 중에서 A-다-25호 석곽묘는 橫口部를 지녔고, 바닥은 판석을 깔아 棺臺로 사용하였으며, 토기병과 청동완 1점이 출토되었다. 또 A-다-38호 토팔묘는 규모가 200×65×45cm로 바닥 중앙부에 직경 20cm·깊이 10cm의 요강을 설치하고 있다. 동경 1점과 철제가위 및 토기병 등이 출토되었다.

### 12. 忠州 虎岩洞 遺蹟<sup>15)</sup>

토팔묘 158기와 석곽묘 5기 및 조선시대 회곽묘 등이 조사되었는데, 고려시대 유구로는 토팔묘 30여기와 석곽묘 5기이다. 대부분 묘광의 방향은 능선 경사면의 방향과 일치하고, 'L'자형으로 지면을 굴광하여 묘광을 조성하고 있다. 또 주묘제는 토팔묘이며, 석곽묘는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난다. 조성 시기는 고려초부터 말기까지이며, 주로 생활 용구를 매납하고 있는데 머리와 발치쪽에 큰 물건을 놓고, 동전과 같은 작은 것은 허리쪽에 부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1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7.4, 『尚州 靑里遺蹟 發掘調查 概報Ⅱ』 -자문위원회의 및 현장설명회 자료-

15) 길경택·유봉희·이윤석·이선철, 1998, 『忠州 虎岩洞遺蹟 發掘調查報告書』, 忠州博物館.

### 13. 용인 마북리 고려 고분군<sup>16)</sup>

석곽묘 4기와 토광묘 4기가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묘광안에 할석을 5단으로 쌓아 석곽의 벽체를 만들고, 관대 시설 없이 맨바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구조적 특징은 무덤의 短壁을 축조하지 않은 점이다. 간단히 조성된 토광묘도 석곽묘와 비슷한 규모이다. 목관이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출토 유물로는 반구병·대접 등의 청자류와 동경과 청동시·중국동전(皇宋通寶-1039년)·동곳 등의 청동류 이외에 철제가위와 구슬이 있다. 무덤들은 좌우로 丘稜性 지대가 감싸고 있는 곳에 입지하여 당시 묘역의 선정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하고, 또 밀집 분포하고 있어 친족 또는 가족 단위의 묘역으로 추정하며, 한 봉토내에 여러 기의 묘곽을 설치하는 多櫛墓의 존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묘제상 토광묘와 석곽묘 사이에 분포 성향이나, 매납유물의 조합 등에서도 특별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계급적 혹 性的 차이에 따라 묘제를 택한 것은 아니며, 남녀의 구별은 유물의 매납상에서만 감지된다. 조사자는 무덤의 피장자에 대하여 고려시대에 특별한 지위를 지니지 않은 일반민들로 보고 있다.

### 14. 여주 하거리 유적<sup>17)</sup>

고려시대 토광묘 12기와 석곽묘 2기가 조사되었다. 주요제는 토광묘이며, 출토유물로는 熙元通寶(1377년주조)·청동시·청자대접·철제가위·철제검 등이 있다. 토광묘의 경우 바닥 중앙에 작은 요강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철검 등을 매납하는 것이 주목된다.

16) 김성태, 1997, 「용인 마북리 정광지구 고려고분군 발굴조사」『'97 京畿道博物館發掘調查概報』, 京畿道博物館.

17)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1998.3.31, 「경기도 여주 하거리 유적 발굴 조사 현장 설명회(자료)」.

## II. 좌항리 고분군<sup>18)</sup>

### 1. 유적의 위치 및 배경

명지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994년 5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좌항리에 위치하는 고려 고분군을 발굴 조사한바 있다. 좌항리 유적은 행정구역 상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좌항리 산 30-1번지에 위치하며 경도상으로는 동경  $127^{\circ} 19'$ , 북위  $37^{\circ} 12' 40''$ 에 해당한다. 용인군 양지면과 원삼면의 경계인 좌전고개(해발 194m)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m 거리의 17번 국도 우측에 분묘군이 위치한다. 좌전고개는 해발 432.2m의 獨朝峰에서 동으로 이어져 내려 양지면과 원삼면의 面界를 이루는 山稜線狀 위치하며 다시 동남쪽의 태봉산과 능선으로 이어진다. 유적은 독조봉에서 좌전고개로 이어진 山稜에서 다시 남쪽으로 흘러내려 동으로 꺾여 이어지는 구릉의 東南 傾斜面에 위치하는데, 동쪽의 태봉산과 巾之山(해발 411.3m)을 바라보는 형상이며, 좌우에 구릉이 감싸안은 지형에 입지한다.

유적은 남북 폭 20~50m 내외, 동서 길이 110m의 구릉 능선과 東南 傾斜面에만 위치하고 있는데 무덤은 매우 산만하게 군데군데 흩어져 분포하고 있다.(도면 1 발굴구역 및 유구배치도 참조) 유적은 급한 지형의 경사에 따른 자연적인 토사의 유실과 인공적인 조림 및 근대 민묘의 조성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또 1970년대에 자행된 도굴(현지 주민들의 중언)로 파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었다.

여기서 분묘군이 위치하는 원삼면 좌항리의 연혁을 살펴보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본래 죽신군 원일면 지역에서 원삼면으로 통합되며 恒谷里·佐贊里·行軍里 등을 합치고 좌찬과 항곡의 첫자를 따서 佐恒里라 명명하였

18) 신천식·임익성, 1994, 『龍仁 佐恒里 高麗墳墓群 發掘調查報告書』, 明知大學校 博物館.

다.

그리면 현 좌횡리(佐贊+恒谷)는 분묘군이 조성된 시기의 즉 고려 초기의 행정구역상 어디에 속할까 궁금하다. 이는 ‘좌찬’이란 지명에서 찾을 수 있겠다. 輿地圖書의 京畿道 陽智篇 地圖에 보면 죽산에서 陽智·京都로 통하는 ‘通竹山大路’상에 ‘佐贊峴’이 나타나는데, 이는 현 좌진고개에 해당한다. 그런데 佐贊이란 지명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高麗史』이다. 즉 고려시대 22개의 驛道中에서 慶(廣)州道에 속하며 龍駒縣(현 용인)의 金領驛과 竹州의 分行驛을 잇는 佐贊驛으로 나타난다.<sup>19)</sup> 고려시대의 站驛制度가 성종대에 驛의大小에 따라 公須田과 館田 등의 驛田이 지급되는 등 전국적으로 완비되었다고 볼 때 고려 초기(분묘의 편년인 11세기 중반기)에도 佐贊驛이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高麗時代 楊廣道 廣州牧의 속현에 해당하는 竹山의 좌찬역 부근에 금번 조사된 古墳群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한다.

## 2. 조사 내용

주요 유구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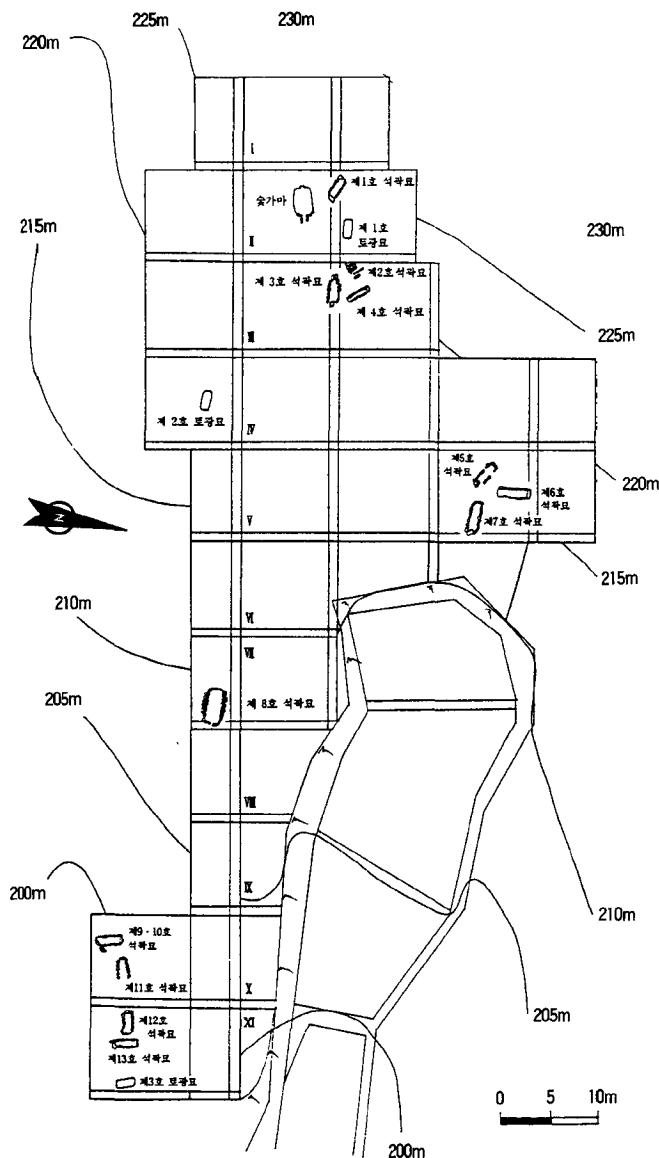
### 1) 第 1號 石槨墓(도면 2)

해발 225m 지점의 구릉 동쪽 傾斜面에 위치한다. 遺構는 조사전 이미 도굴로 장방형 구덩이가 파여져 있었고, 조사 결과 봉토와 개석은 이미 유실된 상태였으나 西短壁과 南·北兩長壁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墳墓의 축조 방식은 西 - 東向으로 길게 ‘U’ 모양의 土壙을 파고, 그 토광 벽에 기대듯이 板狀割石 등을 쌓아 石槨의 壁體를 이루고 있다. 서벽은

19) 『高麗史』卷八十二, 志三十六, 兵二, 站驛

“慶州道掌十五 德風 慶安 長嘉 安業 南山(廣州) 良梓(果州) 金領(龍駒) 佐贊 分行(竹州) 五行 安利(利川) 無極(陰竹) 邊安(陰城) 丹月 安富(槐州)”

256 고려시대의 용인



도면 1. 발굴구역 및 유구배치도

두께 5cm 내외의 판상할석 2매를 立垂積(세로로 세워쌓기)하여 第一段을 만들고 그 위에 판석을 橫平積하여 二段을 이루고 있는데, 이 판석이 양 장벽과의 접합부에 모로 얹혀 西壁의 上段을 모줄임을 하고 있다. 盖石은 모 줄임을 한 제 2단 위에 올렸다고 본다.

南·北長壁은 西端에서 중간 부분까지 판상할석을 立垂積하여 一段을 만들었고, 그 東便是 할석을 臥垂積하여 서로 다르게 축조하고 있다. 第 2段부터는 縱平積으로 축조한 段의 數를 조절하여 壁面 上端을 일정하게 만들고 있으나 잔존 상태가 불량하고, 壁體의 東端部는 망실되었다.

관대는 평평하게 깎은 토광 바닥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관못편이 발견되어 木棺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頭向은 西壁이 가장 먼저 축조되었으며 높은 山峰이 서쪽에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西枕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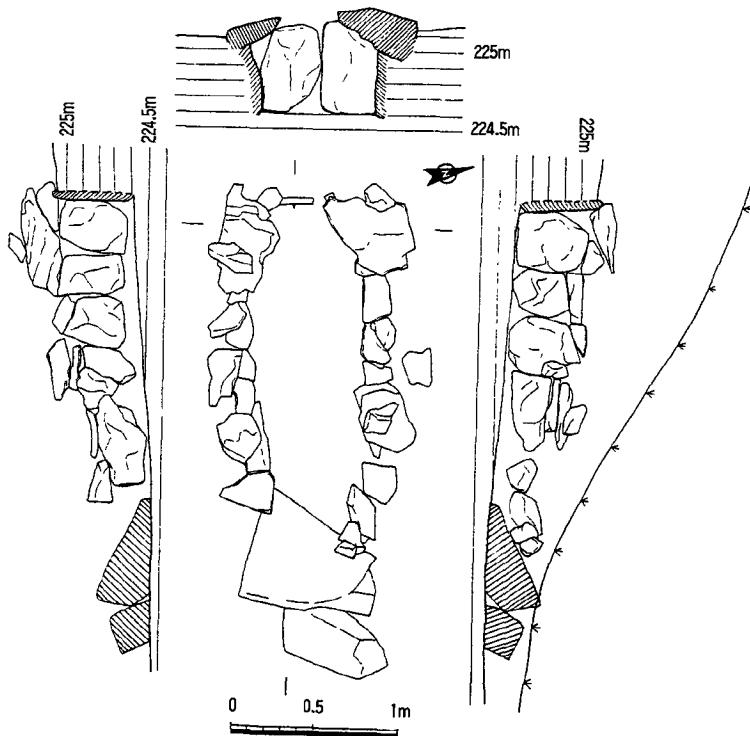
墓制의 구조 형식은 積穴式石槨木棺墓이고, 石槨의 규모는 東西 잔존길이 228cm, 內部 幅 70cm, 내부 높이 60cm 내외이다.

## 2) 第 3號 石槨墓(도면 3)

지표 60cm 아래에서 석곽의 상단이 노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유구의 잔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장축방향은 西를 중심으로 5° 偏南하는 西-東向이다.

石槨의 축조방식은 장방형 토광안에 할석으로 벽체를 만들어 세우는 일반적인 방식이나 토광은 생토면까지 과지 않았다. 第 3號 石槨墓의 구조상 특징은 西短壁의 未築造에 있다. 즉 서벽은 할석으로 축조하지 않고 수직의 토광 벽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개석이 토광의 서쪽 어깨선 上段과 南·북 양 장벽의 西端部 上段을 함께 덮고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구조 형식은 第 7·8號 石槨墓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北長壁은 소형할석(길이 30cm, 두께 15cm내외)을 縱平積하여 5단까지 축조하고 6단부터는 보다 큰 할석(길이 50cm내외)을 縱平積하여 8~9단까지 쌓고 있다. 벽면의 東端部는 소형 할석을 多段 築造한 것이 아니라 대형 막



도면 2. 제1호 석관묘 실측도

돌 2매를 세워 쌓아 마감되는데 이곳을 東壁과의 接合部로 판단한다. 전반적으로 治石되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여 壁面이 고르지 못하다.

東壁은 잔존 상태가 불량하다. 南·北長壁의 東端部와 15cm 간격을 두고 대형 판석(규모: 70×40cm) 1매를 세웠으며 그 뒤로 또 하나의 판석을 가로놓아 보강석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축조 방식은 다른 벽체에 비하여 매우 간략화된 것으로 양 장벽의 東端部 축조 기법과도 유사하다. 본래 동벽의 위치는 대형막돌로 축조된 양장벽의 동단부로 추정하며, 현재 남아 있

는 동벽의 立垂積된 대형판석은 외부 마감 돌로 보고자 한다. 대형판석을 이용하여 石櫛의 축조를 마감하듯이 밖에서 막은 점은 판석이라는 開閉의 容易性과 함께 東壁에 橫口의 기법이 가미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이는 양 장벽의 東端部 축조 형태에서도 뒤반침 되는데 長壁의 東端部 下端이 다른 부분보다 20cm나 깊은 점과 다른 곳과는 달리 대형막돌 1~2매만을 세워 축조한 점이다. 이로 볼 때 石櫛의 벽면 중에서 동벽을 마지막으로 축조한 것이 확인된다.

석곽의 천장 구조는 길이 80cm 내외의 판석 數枚를 남·북벽에 가로 걸치고 그 사이 사이와 각 벽면과의 사이에는 소형할석을 채우듯이 덮어 완성하고 있다.

遺構의 바닥면에서 관못이 출토되어 木棺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墓制의 구조 형식은 穩穴式石櫛木棺墓이다.

遺構의 동서 길이는 250cm이고, 폭은 73cm이며, 높이는 64cm이다.

出土遺物로는 土器瓶(도면 4-①·②)·백자대접(도면 5-①)·청자대접(도면 5-②)·白磁盤(도면 5-④)·백자접시(도면 5-③) 등과 橫“8”字形의 철제가위(도면 4-④)가 있다.

철제 가위의 모양은 양쪽에 刀子形 刃部를 지닌 굵은 철사를 꼬아 돌려 刀部가 서로 對稱하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철제가위는 漢代에서 유래된 것으로 韓半島에는 三國時代부터 사용되어 春川 泉田里 古墳, 廣州 金鈴塚, 梁山夫婦塚, 玄風古墳 등<sup>20)</sup>과 雁鵝池<sup>21)</sup> 등에서 출토된 바 있고 忠州 直洞古墓群<sup>22)</sup>, 단월동 고려묘<sup>23)</sup>, 永同 池鳳里 1地區 2號墳<sup>24)</sup>과 당 좌항리 분묘군 등의 고려시대 유적에서도 출토되어 이러한 형태의 가위가 고려시대

20) 金宅圭, 1978, 「民俗學的 考察」『雁鵝池 發掘調查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 39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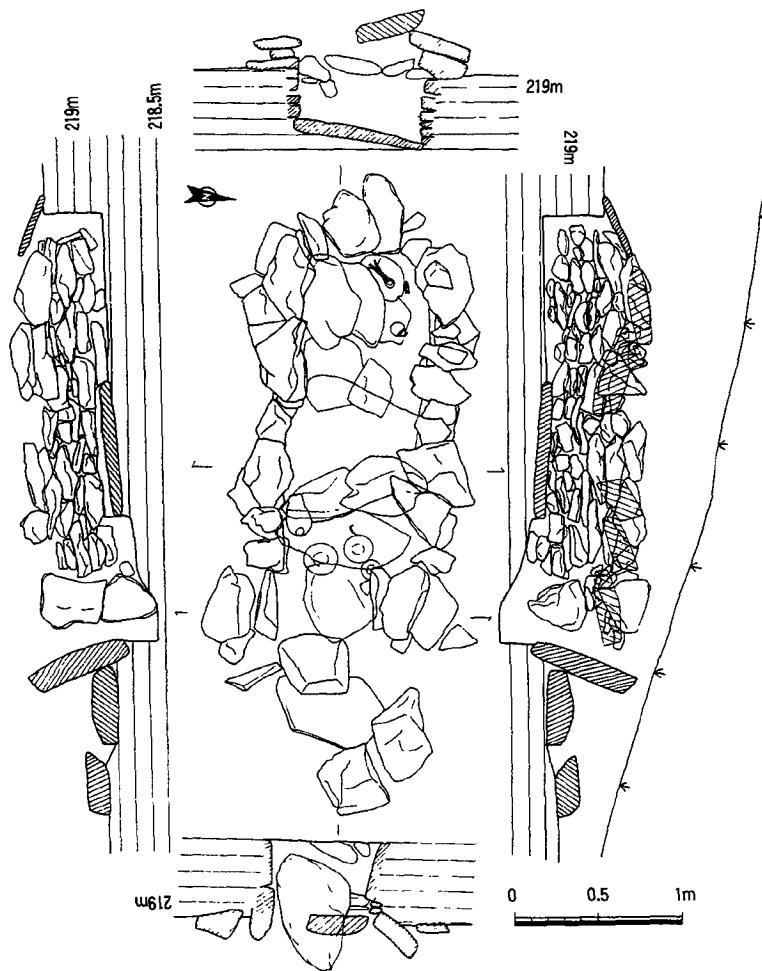
21) 金宅圭, 「앞글」, pp. 395~398.

22) 金顯吉·車勇杰, 『앞책』, pp. 105~106 · p. 132 圖10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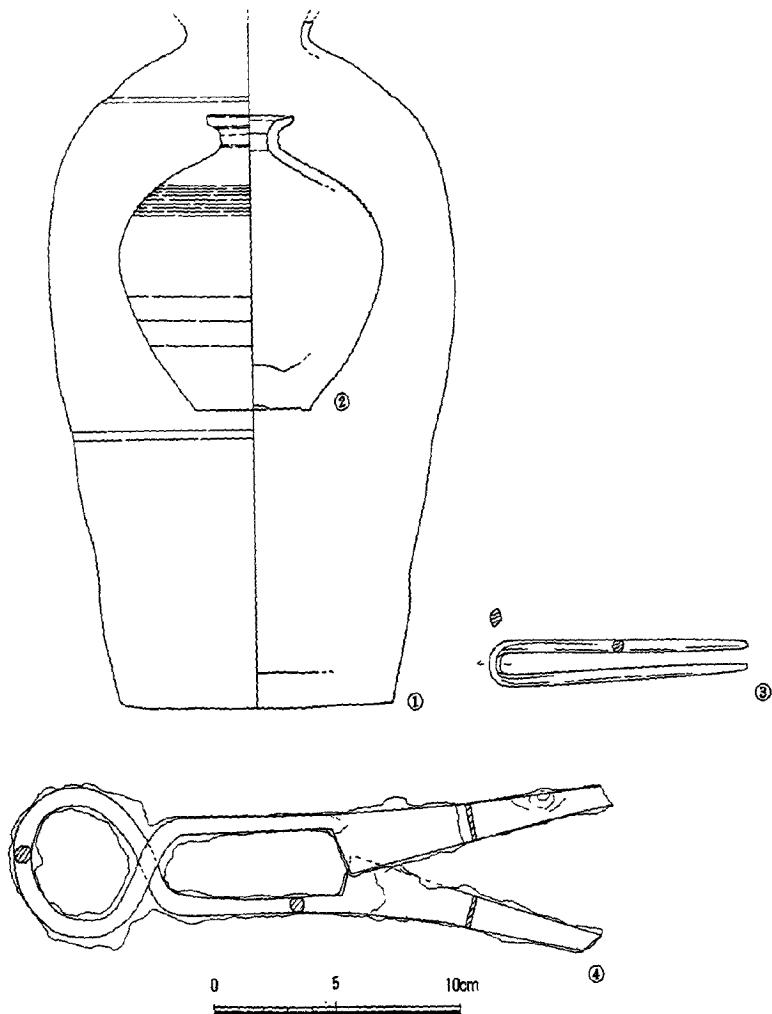
23) 김경택·황정아, 『앞책』, pp. 59~60.

24) 韓南大學校博物館, 1987.6, 『永同 池鳳里古墳 發掘調查 報告』, pp.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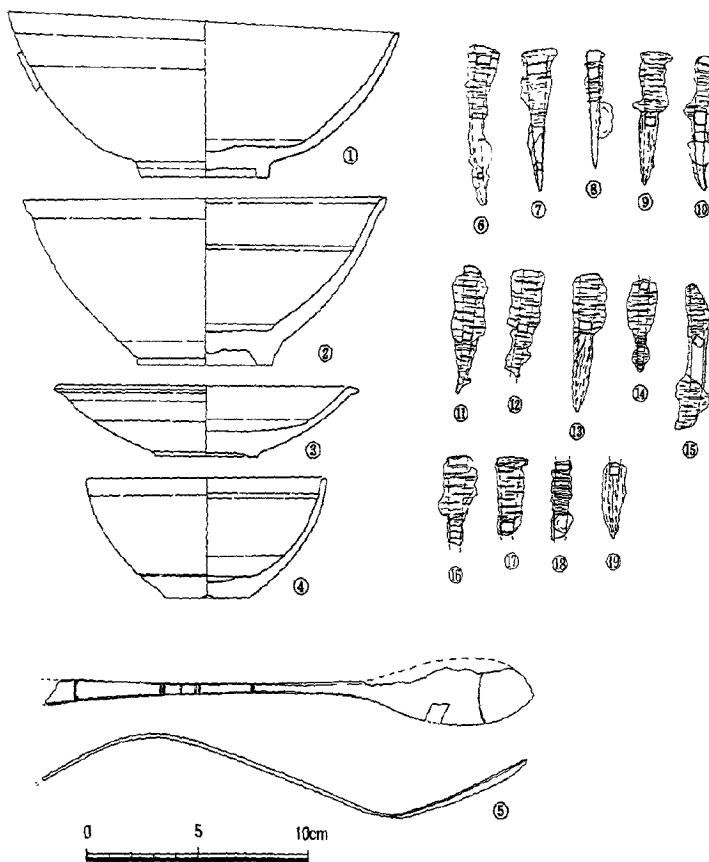
까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길이는 25.5cm이고, 刃部의 길이는 11cm이다.



도면 3. 제 3호 석곽묘 실측도



도면 4. 제 3호 석각묘 출토유물 실측도



도면 5. 제 3호 석곽묘 출토유물 실측도

또 동곳(도면 4-③)이 출토되었는데 단면이 둥근 青銅絲의 중앙을 구부려 양 가지(兩支)를 만든 '匚'字形 동곳이다. 양 가지의 끝은 뾰족하며 구부려진 基部의 단면은 부채꼴(▽)모양이다. 동곳은 머리를 틀 뒤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머리 장식용구의 일종인데 이러한 '匚'字形 모양의 동곳은 樂浪

古墳<sup>25)</sup>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시기가 빠르고 삼국시대에는 傳東明王陵<sup>26)</sup>에서 발견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동곳은 漢나라로부터 유입되어 三國時代와 高麗時代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후 朝鮮時代 後期까지도 비슷한 동곳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길이는 10.4cm 이다.

또 관못(도면 5-⑥~⑯)이 14개 발견되어 목관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第 6號 石槨墓(도면 6)

구릉의 경사가 급한 東南쪽 傾斜面에 위치한다. 지표에 개석 상단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하였으나, 遺構의 대부분은 지표 1m 아래에서 드러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석곽은 장방형 토광안에 할석으로 축조하였는데, 북벽은 길이 90cm의 할석을 臥垂積하여 1단을 만든 다음 2~3단을 작은 판상할석으로 縱平積하여 완성하고 있다. 西(長)壁은 장방형 할석을 臥垂積하여 벽면의 기초를 만들고, 이어 3단까지를 보다 小形割石과 판상할석을 縱平積하여 축조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南端部만은 대형 판석 1매만을 臥垂積하여 연결하고 있다. 東壁도 장방형 할석을 臥垂積하거나 縱平積하여 3단 까지 축조하였고 할석 사이 사이에는 흙과 소형할석을 채워 넣어 보강하고 있다. 동벽의 잔존 길이는 300cm이고 높이는 50cm 내외이다.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깎아 관대로 이용하였고, 북벽 가까이에서 관못이 출토되어 木棺이 매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천장구조는 대형 판석 2매가 遺構를 덮고 있던 것으로 미루어 천장 전면을 판석과 할석으로 덮는 구조였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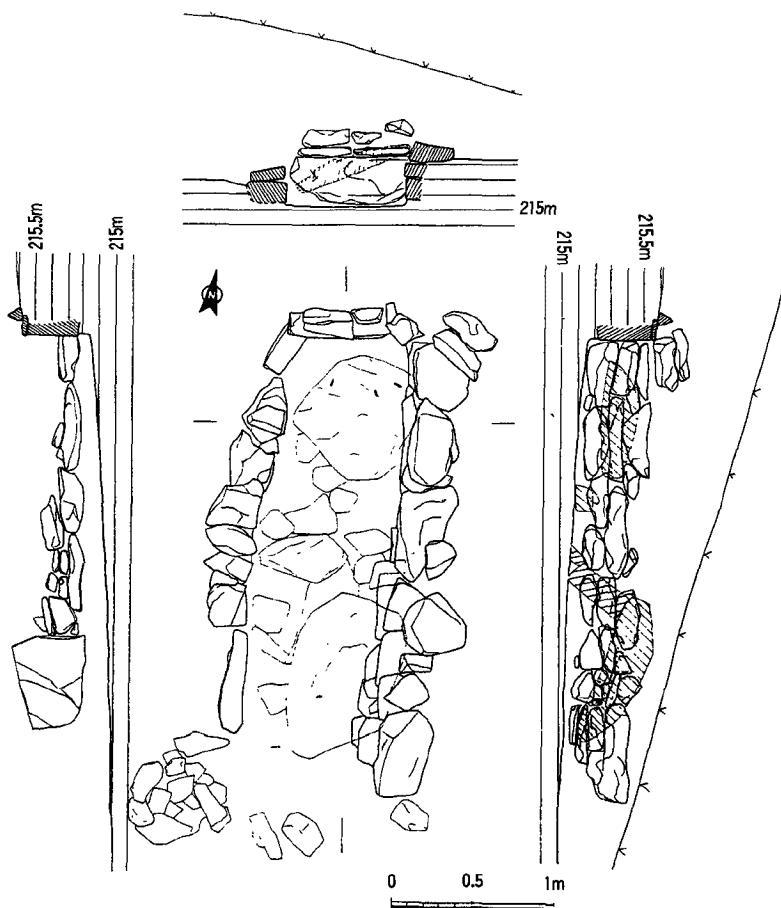
遺構의 정축방향은 北을 중심으로 5° 偏西하는 北 - 南向이며, 枕向은 북벽을 맨 처음 축조한 점과 구릉의 高地가 북쪽인 점으로 미루어 北枕으로 판단한다.

25) 金宅圭, 「앞글」, p. 404.

26) 李浩官, 1992, 「指環 동곳, 뒤꽂이 飾履」『古美術』1992/가을호, 韓國古美術協會, p. 25.

석곽의 규모는 길이 320cm, 폭 90cm, 높이 50cm 내외이며, 토광의 규모는  $355 \times 145\text{cm}$  이다. 각 관못의 노출 위치로 추정하는 木棺의 규모는  $190 \times 40\text{c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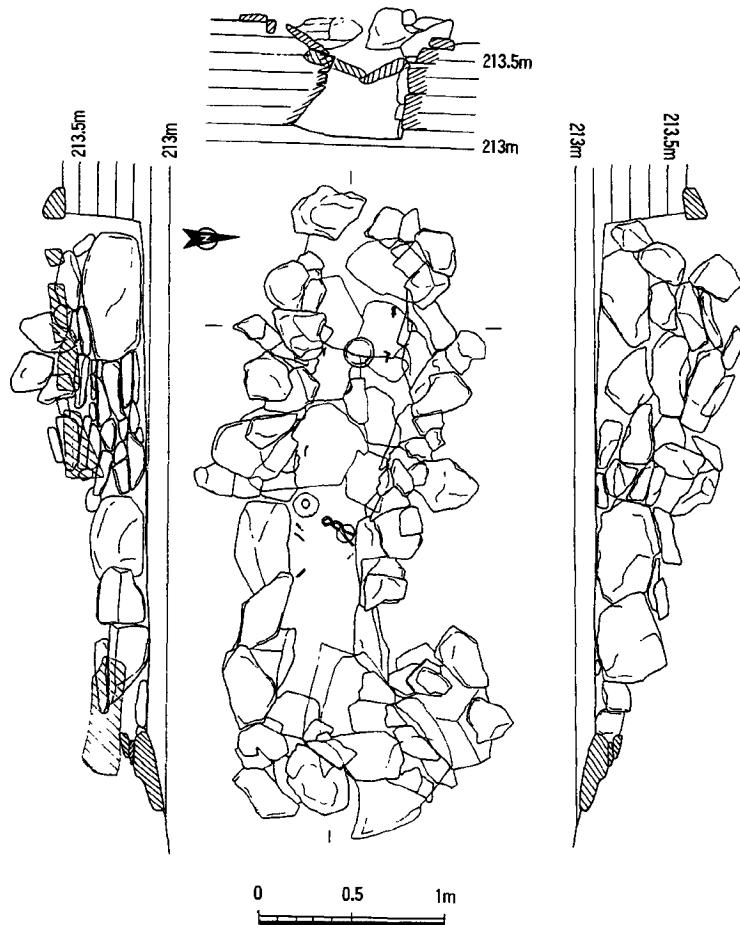
墓制의 형식은 積穴式石槨木棺墓이며, 출토유물은 관못 뿐이다.



도면 6. 제 6호 석곽묘 실측도

4) 第 7號 石槨墓(도면 7)

구릉의 동쪽 傾斜面에 위치한다. 遺構는 잡석이 많은 지역에 장방형 토광을 파고, 그 안에 주변에서 가져온 治石되지 않은 괴석과 헐석으로 벽면을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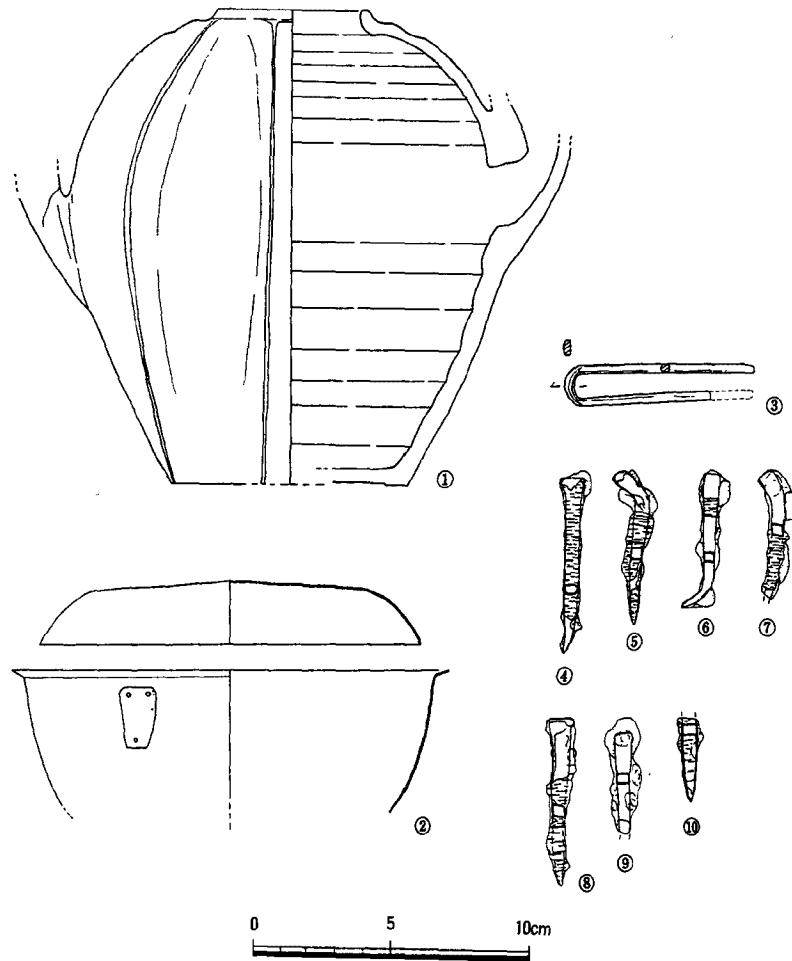
도면 7. 제 7호 석곽묘 실측도

조하고 있었다. 서단벽은 특이하게 석재로 벽체를 만들지 않고 수직 토광면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토광의 어깨선에 동서로 걸치는 소형 판석을 올리고 있다. 北長壁은 부정연한 괴석과 할석을 臥垂積하거나 縱平積하여 벽면을 이루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4단까지 잔존한다. 벽체의 길이는 3m이고 잔존 높이는 80cm 이나, 거칠게 축조되어 전체적으로 벽면이 고르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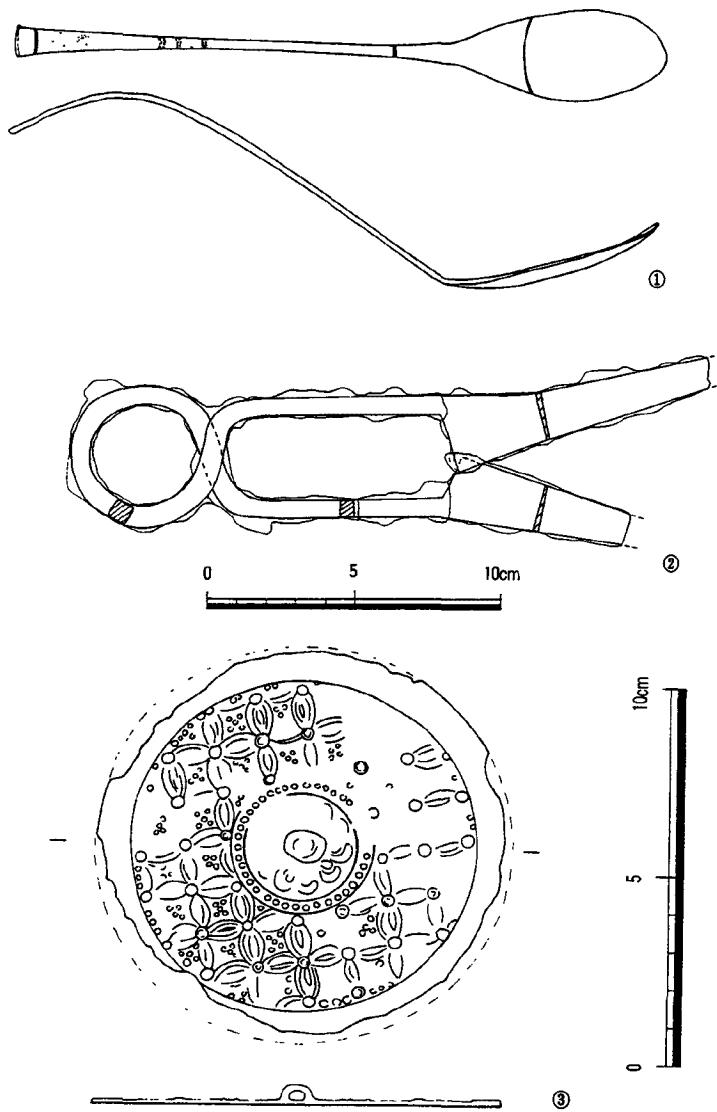
양 장벽의 동단부 외곽을 할석으로 무질서하게 메우어져 있고, 그 위에 판석이 올려져 있어 이를 동벽으로 판단하였다. 그 벽체의 기초를 확인하기 위하여 할석을 제거하자 벽면을 이루는 축조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동벽을 축조하였다기 보다는 외곽에서 석곽을 폐쇄하듯이 메우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石櫛의 관대는 평평하게 깎은 토광 바닥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바닥의 중앙부에서는 철제가위와 銅鏡 및 白磁瓜形注子 등이 출토되었다. 석곽의 천정구조는 안으로 힘몰되어 잔존하는 개석의 형태로 미루어 남·북 양 장벽에 대형판석을 기로 걸치거나, 中形板石의 경우는 서로 중간까지만 맞대어 2枚가 대형판석 1枚의 효과를 내는 수법으로 걸치고, 여타 남은 공간은 소형판석과 할석으로 채우듯이 덮어 완성하였다고 본다. 遺構의 장축방향은 西를 중심으로 5° 偏北하는 西 - 東向이고, 墓制의 구조 형식은 穫穴式石櫛木棺墓이다. 枕向은 지형상 서쪽이 高地이고 木棺이 석곽의 서쪽으로 치우쳐 매납된 점과 동벽을 마감하듯이 메워진 축조한 점 등을 들어 西枕으로 추정한다. 석곽의 내부 규모는 길이 290cm, 폭 56cm, 높이 80cm 이다. 관못이 석곽의 동단부를 제외하고 바닥 전면에서 노출되었는데, 그 위치와 간격으로 보아 木棺의 규모는 150×38cm 내외로 추정한다.

出土遺物로는 白磁瓜形注子(도면 8-①) · 七寶文鏡<sup>27)</sup>(도면 9-③) · 青銅盒(도면 8-②) · 青銅匙(도면 9-①) · 銀製동곳(도면 8-③) · 철제가위(도면 9-②) 등이 있다.

27) 黃互根, 1991, 『韓國文樣史』(高麗銅鏡에 나타난 文樣을 중심으로), 열화당, p. 248.



도면 8. 제 7호 석곽묘 출토유물 실측도



도면 9. 제 7호 석각묘 출토유물 실측도

### 5) 第 8號 石槨墓(도면 10)

해발 208m 구릉의 능선상에 위치한다. 조사된 遺構 중 최대형 遺構로 處女墳 상태로 발굴되었다. 지표 20cm 아래에서 盖石의 上端이 노출되었는데 개석은 대형판석(크기: 120×100cm) 1매로 西端部를 덮고 이와 간격을 두어 다시 동편에 길이 1.3m의 막들을 양 장벽에 걸치고 있다. 양 대형개석 사이와 석곽의 東端部는 보다 작은 판석으로 양편에서 중간부까지만 서로 맞대어 덮어 2매의 판석이 1組로 큰 개석 1枚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 개석과 벽체의 공간 및 각 개석 사이 사이에는 소형 할석을 끼우듯이 보강하여 천장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 개석의 일부를 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하자 적갈색의 충진토가 나타났는데 특별히 구분되는 층위는 없었다.

석곽의 벽면은 장방형 토광안에 축조되었는데 西短壁은 石材로 축조하지 않고 수직 토광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南·北(長)壁은 길이 50cm 내외의 塊石과 割石을 縱平積하여 5~6단까지 축조하였고, 벽면의 틈새에는 소형 할석을 끼워 넣어 보강하고 있다.

동벽은 판상할석 위에 막돌 1매를 올린 형태로 북벽과의 접합부만 나타나 있다. 이와 남벽 사이에는 빈 공간으로 벽체를 축조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부분을 橫口部로 판단한다. 이는 第 8號 石槨墓가 개석까지 완전한 치녀분 상태로 발굴되었는데 오직 동벽의 南端部만 훼손·결실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관대는 토광 바닥면을 평평하게 깎아 사용하였고 동단부를 제외하고는 바닥 전면에서 관못이 검출되었다. 관못의 노출 위치로 추정하는 木棺의 규모는 180×70cm 내외이다.

유물은 바닥의 東端部에서 磁器類와 青銅匙가 발견되었는데, 이로 보아 木棺을 먼저 매납한 다음 木棺과 동쪽 入口 사이에 유물을 埋納한 것으로 판단된다. 石槨의 中央 西便에는 青銅盒과 青銅鎔帶片(도면 13-①·②)이 노출되었는데, 이는 木棺 内部에 매납되었던 것으로 본다.

遺構의 장축방향은 西를 중심으로  $5^{\circ}$  偏南하는 西 - 東向이고, 枕向은 석곽의 서편으로 치우친 木棺의 위치와 구릉의 高地가 서쪽인 점을 감안하여 西枕으로 추정한다. 墓制의 형식은 橫口式의 기법이 가미된 穩穴式石槨木棺墓이며, 석곽의 내부 규모는 길이 300cm, 폭 100cm, 높이 78cm 이다. 또 토광의 규모는  $175 \times 370\text{cm}$  내외이다.

出土遺物로는 綠青磁梅瓶(도면 11-①)과 綠青磁盤口瓶(도면 11-②)이 있는데 器形上 11세기 전반기로 판단되며, 기형<sup>28)</sup>과 녹유의 發色이 뛰어난 상품인 점에서 비교적 고급 綠青磁를 燬造하였던 인천 경서동 요지에서 제조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밖에 기형과 유약의 發色으로 보아 인접한 용인 서리요 번조품으로 판단되는 중상품의 백자대접(도면 12-① · ② · ③)과 백자잔(도면 12-④)이 있다. 또 청자접시(도면 12-⑤ · ⑥) 두점은 맑고 투명한 청자유의 發色이 강진요 번조품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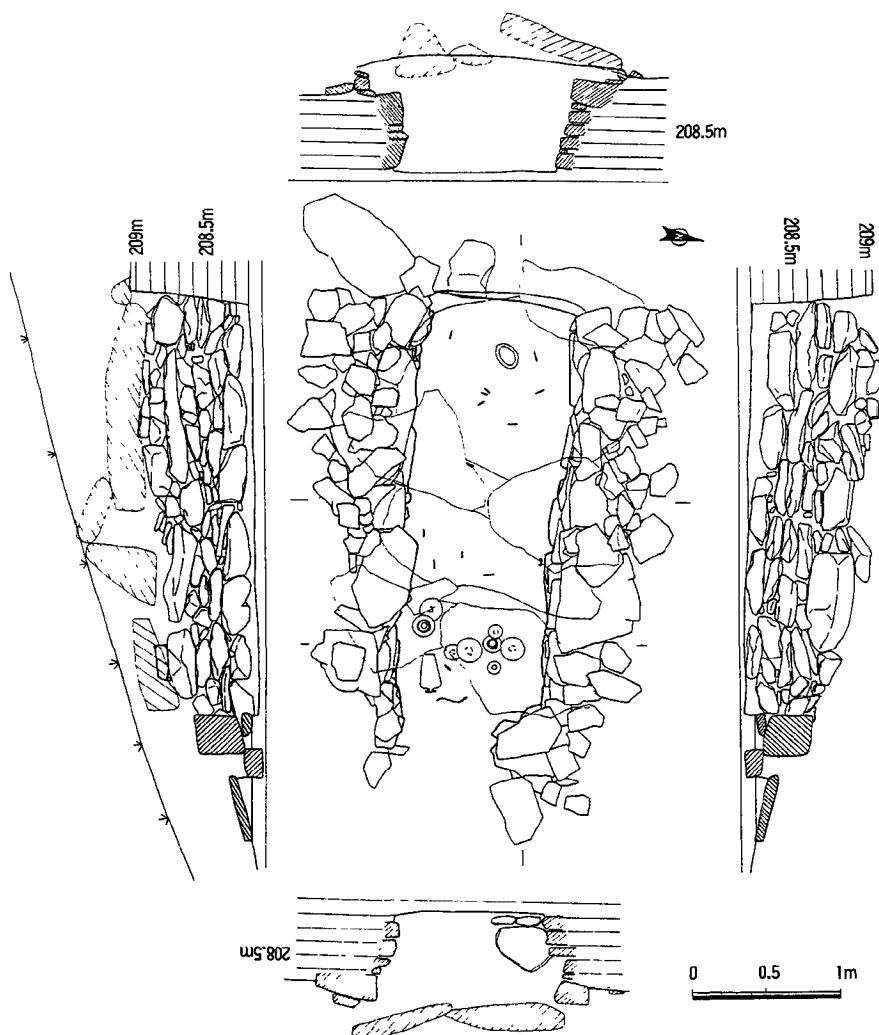
#### 6) 第 13號 石槨墓(도면 14)

도굴로 개석과 遺構 일부가 나타나 있어 지표조사시 遺構의 윤곽을 노출시켜 확인한 바 있다. 遺構의 주변을 정리하자 盖石 1매가 벽면에 얹혀 있는 석곽이 노출되었는데, 그 장축방향은 북을 중심으로  $20^{\circ}$  偏西하는 北 - 南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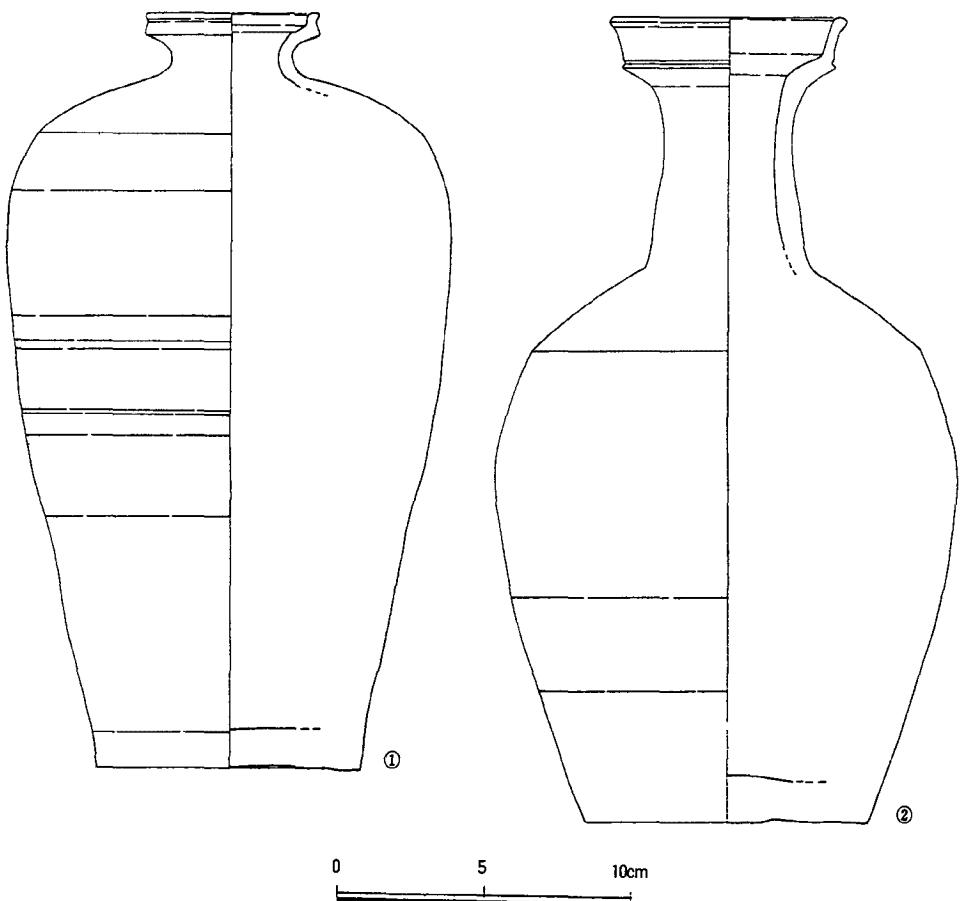
北(短)壁은 길이 45cm의 장방형 판석을 立垂積하여 축조하고 있다. 원래는 동벽과의 접합부에도 동형의 판석 1매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서벽의 北端 뒤에도 소형판석이 세워져 있다. 이로 보아 2~3개의 판석을 토광벽에 세워 석곽의 첫 벽면인 북벽을 축조한 것 같다.

西(長)壁은 북벽의 西端 안쪽에 맞대어 직교하게 축조되었는데 중간부까지는 판상할석을 臥垂積하거나 立垂積하여 1단을 만들고 2~3단을 縱平積하여 쌓고 있으나 그 이후는 소형할석으로 1단부터 縱平積하여 6단까지 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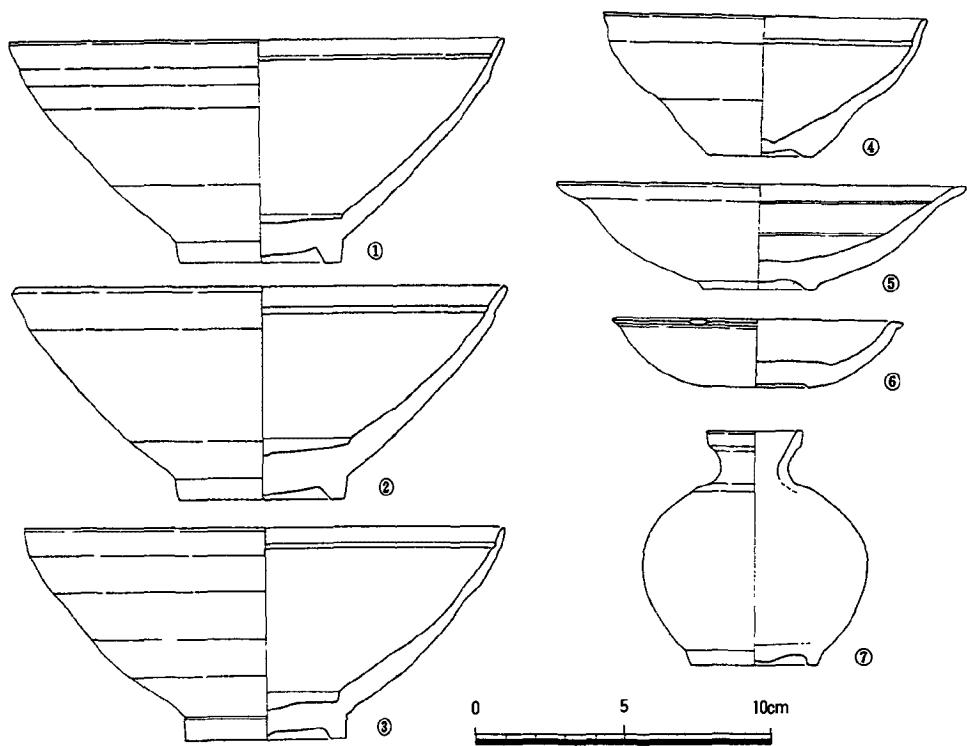
28) 鄭良謨, 1991,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p.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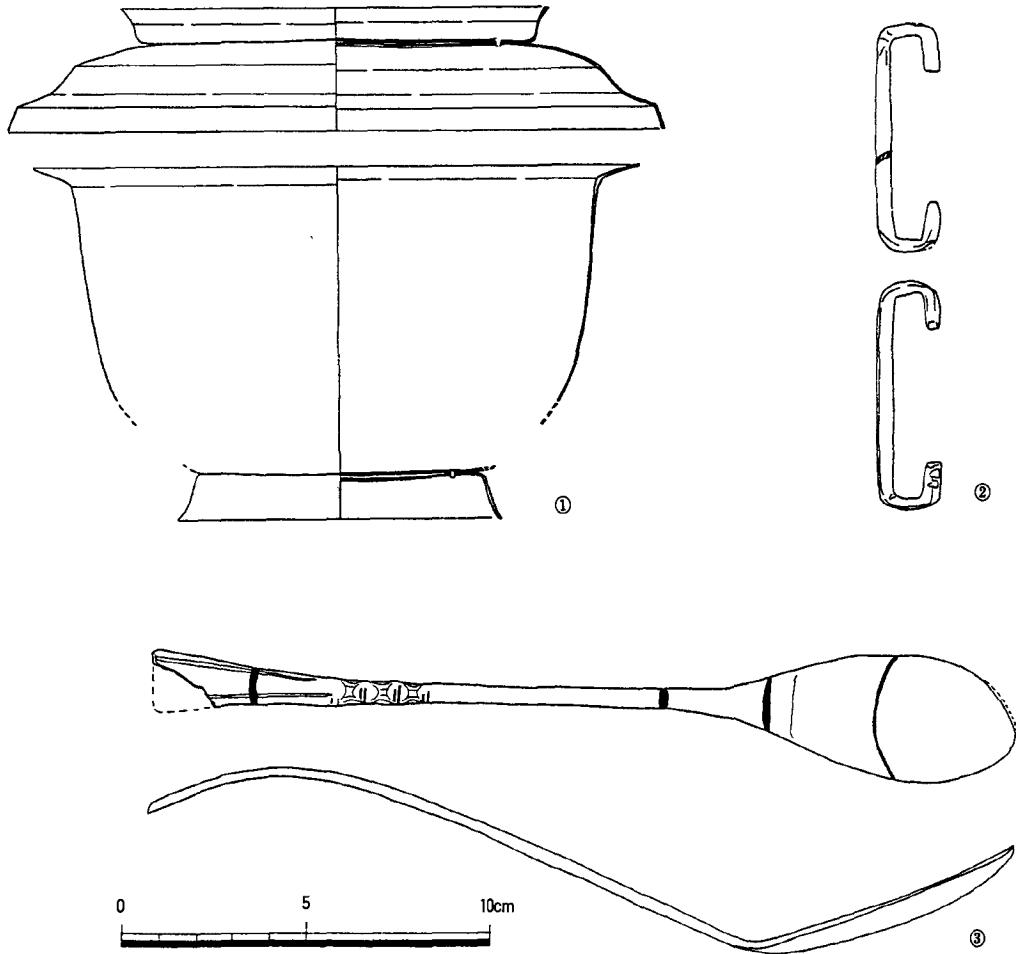
도면 10. 제 8호 석곽묘 실측도



도면 11. 제 8호 석곽묘 출토유물 실측도



도면 12. 제 8호 석곽묘 출토유물 실측도



도면 13. 제 8호 석곽묘 출토유물 실측도

있다. 또 특이하게 서벽의 남단은 판석(크기: 60×40cm) 1매를 立垂積하여 마감하고 있다.

남벽은 좁혀진 동벽과 서벽사이에 할석으로 채우듯이 축조되었다. 필자는 이를 횡구부의 폐쇄식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兩長壁의 南端部가 대형 석재로 마감한 점과 그 下端이 보다 깊은 점, 그리고 세워 기대여진 판석이 남벽 외곽에 존재하며, 남벽의 안쪽이 일정한 벽면을 이루지 못하고 단지 할석으로 양 장벽의 공간을 채운 점 등이다.

관대는 생토면을 평평하게 깎은 토광 바닥을 이용하고 있다. 석곽의 중앙부에서 철제가위가 출토되었고 남단부 입구에서 관못 1매가 검출되었다.

천장구조는 석곽 중앙에 가로 덮여진 개석 1매가 남아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전면에 개석을 얹혀다고 본다.

墓制의 형식은 횡구부를 가진 石櫛木棺墓이고 유구의 규모는 길이 250cm, 폭 80cm, 높이 60cm 이다.

出土遺物로는 橫'8'字形으로 刀子形 가위날이 V字形으로 전개되는 철제가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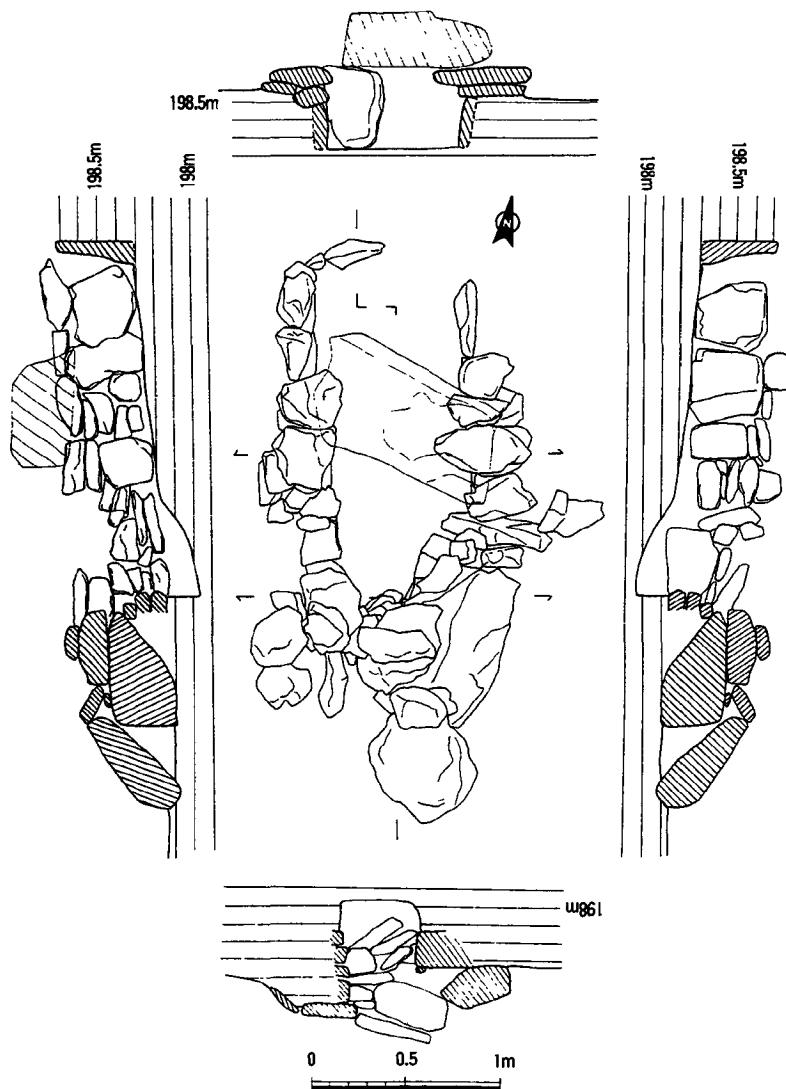
### 7) 第 1號 土壙墓(도면 15)

구릉 남동쪽 傾斜面에서 발견되었다. 지표 70cm 아래에서 墓壙의 바닥면이 노출되었고 토광은 어깨선은 25cm 높이로 남아 있다. 이는 생토면까지 굴광하지 않고 墓壙을 얇게 조성한 것에 기인한다. 얇게 조성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지표면이 현 지표면보다 높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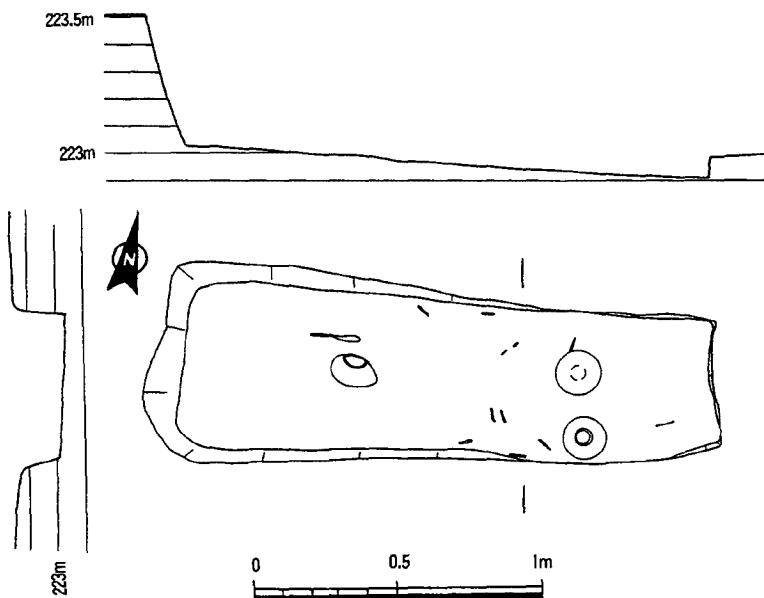
墓壙 바닥의 중앙에는 청동합과 青銅匙가 매납되어 있었고, 동단부에 백자병이 놓여 있었으며, 관못이 발견되었다.

遺構의 장축방향은 서를 중심으로  $10^{\circ}$  偏南하는 西 - 東向이며, 墓壙의 규모는 길이 180cm, 폭 55cm 이다.

出土遺物로는 백자병 · 청자대접 · 青銅盒 · 青銅匙 등이 있다.



도면 14. 제 13호 석곽묘 실측도



도면 15. 제 1호 토광묘 실측도

### 3. 종 학

이상에서 용인 좌향리 고려 고분군의 발굴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유구는 구릉의 능선과 南東쪽 傾斜面에 위치하는데 그 分布狀은 큰 공간을 두고 몇 군데에 흩어져 있다. 유구의 分布狀에서 분묘군의 일정한 조영 의식은 찾을 수 없는데 이는 지형적인 여건(地盤에 雜石이 많고 협소한 면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구의 장축방향도 일정치 않으나 크게 西 - 東向과 北 - 南向으로 나누어지고 제 9·10호 석곽묘의 重疊狀으로 보아 서 - 동향의 유구가 남 - 북향의 유구보다 先行 遺構임을 알 수 있다.

&lt;표 1&gt; 좌향리 고분군 유구 현황 및 유물 종합표

유구	구조 형식	장축방향	遺構(長幅X高) 木棺(長幅)	木棺	屍床	출토 유물												비고	
						토기	백자 대접	백자 접시	백자 완	백자 잔	백자 병	백자 주사	청자 대접	청자 접시	청자 유명	녹청자	청동 합	청동 시	동전 교대
제1호석곽묘	石槨墓	서 - 동 W-13 ° N	(228)×70×60	有	無														
제2호석곽묘	石槨墓	북동-남서 N-30 ° E	175×47×(30)	無	有														
제3호석곽묘	石槨墓 (橫口部)	서 - 동 W-05 ° S	250×73×64 173×40	有	無	瓶 1 小瓶 1	1	1	1				1				1	1	西短壁 未築造 (土壤面 活用)
제4호석곽묘	石槨墓	서북-동남 W-40 ° N	270×40×45	有	無													1	
제5호석곽묘	石槨墓	서북-동남 W-34 ° N	300×60×(30)	有	無	灰釉圓瓶 1	1						1						
제6호석곽묘	石槨墓	북 - 남 N-05 ° N	320×90×50 190×40	有	無														
제7호석곽묘	石槨墓	서 - 동 W-05 ° N	290×56×80 (190)×38	有	無							1				1	1	1	銀製 1 西短壁 未築造 (土壤面 活用)
제8호석곽묘	石槨墓 (橫口部)	서 - 동 W-05 ° N	300×100×78 180×70	有	無	3			1				精質 2	1	梅瓶 1.盛口 瓶 1	1	1	1	西短壁 未築造 (土壤面 活用)
제9호석곽묘	石槨墓	북 - 남 N-10 ° W	260×85×80	有	無	瓶 1, 灰釉小瓶 1		2		1			1	2			1	1	
제10호석곽묘	石槨墓	북동-남서 E-38 ° N			無	有													9號와 重疊, 9號보다 先行遺構
제11호석곽묘	石槨墓	정 서 - 동	(205)×80×(40)	有	無														
제12호석곽묘	石槨墓 (橫口部)	서 - 동 W-10 ° S	280×65×(60)	有	無												1	鐵製 1	
제13호석곽묘	石槨墓 (橫口式)	북 - 남 N-20 ° W	250×80×60	有	無												1		
제14호토광묘	土槨墓	서 - 동 W-10 ° S	180×55×(25)	有	無							1	1			1	1		
제15호토광묘	土槨墓	정 서 - 동	170×70×(35)	無	無	壺 1									鉢 1				
제16호토광묘	土槨墓	정 북 - 남	185×55×(20)	無	無	1	1										1		

&lt;단위는 cm이며, ( ) 잔존상태이다&gt;

枕向은 木棺의 위치와 유물 배납상태 등에서 서 - 동향의 경우 西枕이, 북 - 남향의 경우는 北枕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구릉의 高地를 향하는 것이다.

墓制는 石槨墓가 주류이고 소수의 土壙墓가 혼재한다. 석곽묘의 특징은 일부 橫口式 기법이 가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입구를 短壁쪽에 두는 구조적인 문제이지 一墓에 二人 이상을 매장하는 기능적인 요소(追加葬을 위한 구조)는 아니다. 또 좌향리 석곽묘의 구조적 특징은 수직의 土壙壁面을 활용한 短壁의 未築造에 있다.

소수의 토광묘는 장축방향과 규모 및 출토유물상에서 석곽묘와 대동소이하여 동일시기에 활용된 墓制로 본다.

유물은 토기·자기류와 금속류가 주류이다. 자기류는 기형과 기종이 다양하다. 青磁·白磁·綠青磁가 동반 출토되며 燔造상태에 따라 크게 粗質燔造品과 精質燔造품으로 구분된다. 녹청자는 기형과 번조상태등에서 인천 경서동요의 생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질의 청자접시는 강진요 번조품일 가능성이 높후하다. 나머지 조절품은 용인서리요의 번조품으로 판단한다.

유물은 대부분 목관과 석곽의 입구 사이에 배납되었고 목관내에는 동경·가위·동곳 등의 금속류가 배납되었던 것 같다. 또 동경은 철제가위와 결합되어 출토하고 있다.

유적의 편년은 자기의 기형과 번조상태 등에서 11세기 중반부로 보고자 한다. 특히 용인서리의 퇴적층위중 ‘해무리굽백자층’이후인 ‘조질백자층’의 전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 III. 고려시대의 묘제

고려시대 묘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왕족(왕릉)무덤과 귀족층무덤 그

리고 일반민들의 무덤 등 계층간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축조 방식에 의한 구조적 측면에서 구분하면 석실분과 석곽분·석상분 그리고 토 광묘 및 회곽묘로 나뉘어 진다.

大形 橫口式 石室墳은 왕족의 무덤에 주로 사용된 형식으로 왕릉은 풍수 사상에 의거 南面한 산 기슭이나 중턱에 입지한다. 내부 구조는 반지하 또는 지하에 석실을 마련하는데 治石된 석재를 사용하여 2~3단 쌓아 방형(장방형)이 되게 하고 천장은 平天障 구조로 전체가 箱子形 석실을 이룬다. 석실의 규모는 한변 3m, 높이 2.5m 내외이며, 돌의 표면에 회를 칠하고 벽화를 그렸는데, 천장에는 星辰圖, 네 벽에는 四神圖와 十二支神像·꽃·대나무·소나무·인물 등을 그린다. 또 현실 바닥은 塚을 깔았고, 중앙에 棺臺를 만들었으며 남벽에 입구를 터놓았으나 판석으로 막았고 연도는 없다.<sup>29)</sup> 묘역의 길이와 너비는 대략 2:1 비율로 조성하는데 남북 길이는 36m, 동서 폭은 18m 정도이다. 또 4개의 단을 마련하고 제1단에 무덤을 마련하며, 그 3면에 돌담을 돌린다.<sup>30)</sup> 봉분은 등근 모양으로 높이는 3~6.5m, 직경 8~9m이다. 봉분 기저부의 護石(병풍돌)에는 신라시대 고분에서 보이는 12지상을 새겨 놓은 것도 있다. 또 주위로 돌난간을 돌리었고, 그 외곽에 돌짐승을 배치한다. 무덤 前面에는 床石을 두고 좌우에는 망주석을 세운다. 묘역 제2단에는 장명등과 문인상을 두며, 제3단에는 무인상을 세우고, 제4단에는 丁字閣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고려 왕릉의 내부 구조 형식은 통일신라 석실분을 계승한 것으로 당시 중국 宋·元의 아치형 천정구조를 지닌 塚築墳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유한 것이다. 또 이는 이후 朝鮮時代 왕릉의 祖形이 되고 있다.<sup>31)</sup>

中小形 石室墳은 귀족무덤으로 왕릉보다 규모가 크게 줄어든 형태이다. 대부분 개성의 水落岩洞·法堂坊 石室墳과 같이 내부 벽면에 회칠하고 星辰

29) 金元龍·安輝濬, 1993, 『韓國美術史』, 서울대학교出版部, pp. 257~260.

30) 왕성수, 「개성일대 고려왕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0-2, pp. 32~33.

31) 金元龍·安輝濬, 『앞책』.

圖와 十二支神像 등을 그린 벽화묘의 형태로 발견되고 있다.

石箱墳(石棺墓)은 대부분 귀족과 일반민의 화장묘로 곱게 연마된 점판암  
板石 6매를 짜 맞춘 石棺에 화장된 유골을 磁器類와 함께 넣고 있고, 석관  
의 외면에 四神圖를 線刻하며, 뚜껑이나 別石에 墓誌銘을 刻字하는 경우가  
많다.

石櫛墓는 板石(割石)을 이용하여 여러단 쌓아 櫛을 조성한 구조로 中流  
以上 일반인들의 무덤으로 본다.<sup>32)</sup> 또 토광묘는 전통적인 木棺用 토광묘로  
일반 서민들의 무덤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밖에 고려시대부터 회곽묘가 등장한다.

고려시대 무덤에서 구조 형식에 관계없이 墳丘는 土塚으로, 그 모양은 원  
형 또는 (장)방형이며, 방형의 경우 둘레에 장대석을 두르는 것이 보통이다.

고려시대에는 분묘의 규모를 신분에 맞추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  
었는데 『高麗史』「刑法志」에

경종 원년(976년) 2월 문무양반 墓地의 규모를 정하였는데 1品은 사방 90  
步 · 2品은 80步로 하되 무덤 높이는 각각 1丈 6尺이며, 3品은 70步에 높이가  
1丈이오, 4品은 60步 · 5品은 50步 · 6品 이하는 모두 30步로 하되 무덤 높이는  
각각 8尺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sup>33)</sup>

이 기록에서 무덤의 높이를 1 · 2품은 16척(496cm내외: 舀造尺 = 30.785 ~  
31.0272cm<sup>34)</sup>), 3품은 10척(310cm 내외), 4품 이하는 8척(248cm 내외)을 넘  
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묘지의 면적도 제한하고 있다.

또 당시 墓地를 관리하는 규정도 『高麗史』「刑法志」에 보이는데

32) 金元龍 · 安輝濬, 『앞책』.

33) 『高麗史』卷八十五, 志三十九, 刑法二, 禁令.

“景宗元年二月 定文武兩班墓地 一品方九十步 二品八十步 墳高並一丈六尺 三品  
七十步高一丈 四品六十步 五品五十步 六品以下並三十步 高不過八尺”

34) 윤장섭, 1975, 「한국의 영조칙도」『대한건축학회지』.

다른 사람의 경지(땅)에 몰래 무덤을 쓰는 자는 매 50대를 치고, 묘전(무덤에 속한 경지)에 묻은 경우에는 곤장 60대를 치며, 경지의 주인은 이정(里正)에게 알리고 무덤을 옮겨 묻어야 한다. 이정에게 고하지 않고 옮겨 묻은 자는 매 30대를 친다. 남의 묘전을 몰래 경작한 자는 곤장 100대를 치고 무덤을 출해한 자는 도형(徒刑) 1년에 처한다. … 중략 … 남의 무덤 안에 있는 나무를 찍어 간 자는 (파록으로 환산하여) 1尺에 곤장 60대 · 1匹에 70대 · 2匹에 90대 · 4匹에 100대를 각각 치고, 5匹에는 도형(徒刑) 1년 · 10匹에는 1년반 · 15匹에는 2년 · 20匹에는 2년반을 각각 처하며, 30匹에는 2,000里 밖으로 · 35匹에는 2,500里 밖으로 · 40匹에는 3,000里 밖으로 각각 유배를 보낸다. 친척의 무덤 위에 있는 나무를 베은 자도 이와 같다.<sup>35)</sup>

여기에서 묘지에 속하는 경작 할수 있는 경지(墓田)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묘지안의 수목도 엄격히 보호되었음을 알려준다. 또 盗葬이나 사사로운 타인묘 移葬까지 세세히 규제하고 있는 등 고려시대에는 墓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 졌다고 짐작한다.

이밖에 고려시대 葬法의 일면을 유추 할 수 있는 사료가 『高麗史』에 있는데

(文宗)29년(1075년)에 … 중략 … 군인이 죽으면 관과 덧관을 공급하여 데전(隊典)으로 하여금 시체를 호송케 하며, 그 재물은 처자에게 주고 장례로 쓰는 비용은 나라에서 주기로 결정하였다.<sup>36)</sup>

라는 기록과

35) 『高麗史』 卷八十五, 志三十九, 刑法二, 禁令.

“盜葬他人田笞五十 墓田杖六十 告里正移埋 不告而移笞三十 盗耕人墓田杖一百 傷墳者徒一年 … 斫伐他人墓塋內樹木者 一尺杖六十 一匹七十 二匹九十 四匹二百 五匹徒一年 十匹一年半 十五匹二年 二十匹二年半 二十五匹三年 三十匹流千里 三十五匹二千五百里 四十匹三千里 伐親屬墓內樹者亦同 …”

36) “高麗光年特征防軍人志三十匹者累棺槨令隊典護屍遞傳并其資財付諸妻子官給葬時所需”

高宗 19년(1232년) 11월에 처음으로 관과 덧관에 금박으로 치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sup>37)</sup>

라는 기록이 보여 고려시대에는 棺과 함께 柳이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또 외국에서 전래된 불교식 火葬을 비판하며, 고유의 장법 시행을 주장하는 사료가 보인다. 즉

공양왕 원년(1389년)에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葬라는 것은 감춘다(藏)는 것이니 葬事를 지냄으로써 해골을 감추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중략 … 네치 두께의 棺과 세치 두께의 덧관(柳)을 쓰도록 제정한 것은 오히려 (시신이) 빨리 썩을까 염려한 것이오, 수십 벌의 옷을 시체에 입히고 싸는 것은 그래도 읍지나 않을까 염려한 것이며, 곡식을 관속에 넣은 것은 개미가 침범하지나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sup>38)</sup>

이상의 사료에서 고려시대에는 葬禮時에 네치 두께의 관과 이보다 약간 얇은 덧관을 함께 사용하고, 여러 벌의 수의를 시신에 입히며, 棺안에 곡식<sup>39)</sup>을 넣는 것이 보통 고유한 장례법이었다고 판단된다.

#### IV. 맷 는 말

고려시대 보편적인 묘제에 좌향리 고분군을 대비하면 우선 입지면에서

37) 『高麗史』 卷八十五, 志三十九, 刑法二, 禁令。

“高宗十九年-----十一月始禁棺柳飾金箔”

38) 『高麗史』 卷八十五, 志三十九, 刑法二, 禁令。

“恭讓王元年憲司上疏曰葬者藏也所以藏其骸骨不暴露也-----聖人制以四寸之棺三寸之柳猶恐其速朽歛衣數十襲猶恐其或薄也置穀棺中猶恐其螻蟻之或侵也---”

39) 실제로 중원 누암리 23호 석곽묘에서는 81점이나 되는 많은 관못과 함께 곡식이 출토된바 있어 『고려사』의 기록과 부합된다.

좌우로 보다 길게 훌려내린 구릉을 두고, 그 중앙에 감싸안긴 듯한 구릉에 분묘를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접한 용인 마북리 고려고분에서도 보이는데, 고려시대 일반적인 묘지 선정 방식(풍수지리)과 일치한다.

좌항리 고분군의 피장자는 고려시대 묘제의 축조 기법상 중류 이상의 일반민(석곽묘)과 평민(토광묘)에 해당한다. 봉분의 높이와 본래 묘지의 면적을 복원하지 못하여 「刑法志」에 나타난 묘지의 규정과 대비할 수는 없으나, 부장품 중에서 인천 경서동 요지의 녹청자와 전남 강진에서 변조된 것으로 판단되는 청자류가 용인 서리 번조품과 함께 나타나는 등 장거리 교역의 증거가 나타나는 점에서 상당한 세력가의 분묘로 추정한다. 이는 고려시대 참역제도상의 하나를 이루는 좌찬역 부근에 입지하는 교통의 편이성도 반영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한다.

좌항리고분군의 주묘제는 석곽묘이다. 석곽(실)묘의 계통을 살펴보면 삼국시대 낙동강 유역의 지배층 무덤으로 주로 채용되다가 6세기 이후 영남지방과 충청도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의 묘에도 채용된다.<sup>40)</sup> 통일신라 기에는 횡혈식 석실과 함께 사용되다가 고려기에 들어 사라졌다고 보았으나, 근래 발견 예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축조기법상 삼국시대 석곽묘의 전통은 조선시대 석곽묘<sup>41)</sup>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1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김해 덕산리 민묘(석곽묘)에서도 횡구식 석곽(실)묘가 발견되어 좌항리 횡구식 석곽묘는 계통상 삼국시대 석곽묘에서 조선시대 석곽묘로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좌항리 고분에서는 목관의 사용은 확인하였으나, 덧관(櫛)의 사용여부는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다.<sup>42)</sup> 또 타 유적에서 보이는 요개<sup>43)</sup>의 구조도 전

40) 朴廣春, 1995, 「考察」, 『金海德山里民墓群』, 東亞大學校博物館.

41) 沈奉謹·朴廣春, 1995, 『金海德山里民墓群』, 東亞大學校博物館.

42) 제 8호분에서는 23개의 관못이 검출되었으나, 각 관못사이에 구분되는 경향은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35개의 관못이 출토된 화성 송라리 1호분에서는 二重格이 사용되고 있어 관못이 대량 출토되는 고려시대 분묘의 경우 덧관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혀 보이지 않는다.

용인지역에서 발견된 또 다른 고려고분으로는 植金里 高麗 墓群이 있다. 양지면 식금리 金箔山 중턱의 남쪽 傾斜面에 10여기가 분포하는데, 횡구식 石室(櫛)墳으로 보고 있다.<sup>44)</sup> 이밖에 전술한 마북리 유적과 상갈리에서 발견된 토광묘 1기<sup>45)</sup>가 있다.

용인지역 고려 고분은 모두 구릉 중턱과 사면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석곽묘의 경우 좌향리 고분에서와 같이 횡구식 기법과 단벽의 미축조 또는 간락화 경향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용인지역 고려고분의 지역적인 특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좌향리 고분군의 주인공은 11세기경 용인지역(좌찬역)에 기반을 두는, 봉분의 높이가 8척(약2.5m) 이내로 규정되어 지던 중류층으로 장법상 불교식 장법보다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 고유의 장법인 석곽묘와 토광묘를 선호하던 집단으로 추정한다.

43) 요개이 발견되는 고려시대 고분으로는 개성 법당방·대구 송현동·상주 청리·안산 부곡동·충주 누암리·화성 건지리·여주 하거리·고양 더부골유적 등이 있고, 조선시대 분묘로는 괴주 성동리·법흥리유적 등이 있다. 요개 안에 토기호·동전·철기 등을 매납하고 있는데, 그 계통이 원삼국기의 요개과 계속 연결되는 지는 추후 삼국시대와 통일신라기의 고분(특히 토광묘)에서 그 고리를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44) 국립중앙박물관, 1988, 「용인군 지표조사」, 『新岩里』 I.

45) 洪鍾必·嚴翼成, 1998, 『기홍상갈지구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명지대학교박물관 외.